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에 상진 스님 당선

4월 18일 선거…153명 투표 중 95표 받아 선출

오는 6월 27일부터 임기 시작해
6대 공약 강조해…"공심 갖겠다"
문화사업단 설립, 문화포교 계획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에 상진 스님이 당선됐다.

태고종 총무원은 4월 18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종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28대 총무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날 선거에는 선거인단 164명 중 15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3시 이후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개표 결과 기호 1번 상진 스님이 과반인 95표(62.1%)를 받아 제28대 총무원장 당선을 확정지었다. 기호 2번 성오 스님은 58표(37.9%)를 획득했고, 기권은 2표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구산 스님은 상진 스님의 당선을 선포한 뒤 당선증을 전달했다.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임기는 6월 27일부터 시작한다.

당선 직후 상진 스님은 차분하게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 특히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6가지 공약 추진을 약속했다. 상진 스님은 선거 당시 △문화사업단 설치 운영 △지방분권의 확립 △교육사업 확대 △승려복지 현실화 △종단 운영의 자립화 △징계절차 3심화 부활 등 6대 핵심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상진 스님은 "선조사 스님의 발자취를 온 정신에 새기고 앞장서 후학들이 따를 올곧은 첫 걸음을 내디디려 한다"며 "오늘 우리가 걷는 이 발자욱이 앞으로 뒤따를 후학이 살아갈 종단을 만든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신중하고 뚜렷한 이정표를 남기겠다"고 밝혔다.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상진 스님(사진 왼쪽)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구산 스님에게 당선증을 전달받고 있다.

이어 "소납의 6가지 공약은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이 종단 구석구석 퍼져 뿌리를 내릴 것"이라며 "마침내 거대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돼 종도 모두가 다함께 행복한 태고종에서 웃으며 두 손을 마주잡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상진 스님은 "공심(公心)으로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상진 스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공명정대하게 총무원을 이끌어 가겠다"며 "사심없이 오직 공심으로 종단을 운영하겠다. 태고 보우 국사를 종조로 모시기에 태고종은 한국불교 적자 종단이다. 이 종단이 빛이 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시행할 종책으로는 각 교구 종무원장들에게 종단 운영에 대한 의견 경청을 꼽았다. 이에 대해 상진 스님은 "태고종 각 교구 종무원장들과 앞으로 종단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조율하려 한다"고 밝혔다.

제1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화사업단에 대해 상진 스님은 "태고종이 보유한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하고 국가지원금을 확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 한다"며 "전통불교문화 발굴과 전파를 종단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한국불교문화의 선두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의 의전 서열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종단협 의전 서열은 사실 한국불교 종단 서열도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현재는 조계종-천태종-진각종-관음종-태고종 순으로 원래는 태고종이 의전 서열 2위였으나, 종단 내 갈등과 분규로 의전 서열이 추락하게 됐다.

상진 스님은 "몇몇 종단과 협의를 통해 의전 서열으로 끌어올리려 했으나 현재는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종단협에 협조 요청을 하고 종단들과 협의해 태고종의 위상에 맞게 의전 서열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991년 4월 철화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2011년 11월 혜초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4년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졸업했고, 2022년 진각종립 위덕대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학생과장을 시작으로 동두천 광덕사 주지, 마산 원각사 주지와 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 교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회의원, 양주 청련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청련사 안정불교대학 강주, 양주불교사암연합회 명예회장, 고려대 불자교육회 지도법사 등을 맡고 있다.

조계종, '비건 만두' 시대 연다

도반HC · CJ, 4월 18일 MOU 체결
만두 등 간편사찰음식 공동개발
5월 1일부터 승소몰서 판매 개시

"누구나 일상에서 간편하게 'K-사찰식' 제품을 즐기는 식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대표이사 지현)와 ㈜CJ제일제당이 업무협약을 맺고 사찰음식 현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4월 18일 서울 조계사 대회의실 담소에서 사찰음식 공동개발 및 협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도반HC와 CJ제일제당은 2022년 7월부터 국내 사찰음식의 선두적 역할을 해온 서울 진관사 스님들의 지도 · 감리 아래 오신채가 들어가지 않은 정통 사찰식 만두를 공동개발 해왔다. 약 1년간 6차례에 거친 감리 끝에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사찰식 만두를 출시하게 됐다.

양 기관은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고 사찰식 본연의 맛을 살린 무(無) 오신채 만두의 개발을 필두로 향후 다양한 사찰식을 손쉽고 편하게 맛볼 수 있도록 가공식품 형태로 공동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CJ제일제당 측은 브리핑을 통해 4가지 핵심 카테고리를 선별, 사찰음식을 선정하고 간편성과 맛을 담아 일상에서도 쉽게 사찰음식을 즐기는 식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주력 상품은 만두와 잡채, 콩고기다. CJ제일제당 측은 "차별화 기술력을 담아 100% 식물성 원료 사용을 통한 환경과 생명의 존엄성 이해는 물론, 자연 재료 그대로의 조화로움을 통해 음식에 불교 정신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대표이사 지현)와 ㈜CJ제일제당은 4월 18일 서울 조계사 대회의실 담소에서 사찰음식 공동개발 및 협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CJ제일제당은 햇반 형태의 공양밥을 개발, 사찰 정신을 이은 나눔 트렌드를 만들어가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밝혔다. 편리하고 안전한 '나눔 공양밥'을 컨셉으로 한 공양밥은 직접 밥을 짓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공양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원 담아 공양밥 캠페인' 등 다양한 공양밥 문화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도반HC 대표이사 지현 스님은 "㈜도반HC는 종단사업지주회사로서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한다"면서 "사찰, 스님, 신도들의 생활 전반에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익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도 "CJ제일제당은 조계종과 천년을 함께 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템플스테이 활성화, 지역 쌀 활용 등 조계종과 함께 나아가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만두 구매는 ㈜도반HC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승소몰(www.seungso.co.kr)과 지점 '승소'에서 5월 1일부터 가능하다.

임은호 기자

진우 스님 "천태종, 한국불교 중흥 동반자"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환담

조계종과 천태종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함께 하기로 손을 맞잡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사진>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천태종 총무원장에 취임하신 걸 축하드린다"면서 "앞으로 자주 만나 한국불교 발전과 중흥을 위해 논의하자"며 "한국불교 위상을 높이는데 천태종의 역할이 컸다. 한국불교 중흥 불사에 천태종이 동반자로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덕수 스님은 "한국불교의 종가인 조계종에서 추진하는 불사에 천태종도 열심히 보좌하겠다.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열심히 돕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환담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범종 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갈수 스님, 기획국장 홍법 스님, 총무국장 용덕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진경 스님 등이 배석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포교원, 포교원력 선포식 연다

5월 6일 '전법ON,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주제로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5월 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공연장에서 '전법 ON!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를 주제로 포교 원력 선포식을 개최한다.

조계종 포교원은 제8대 포교원 주요 종책 실현 일환으로 2023년을 '포교역량 전문화 원년의 해'로 천명하고, 포교 인력의 자긍심과 전법 원력의 기치를 드높이기 위해 포교 원력을 선포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2월 사단법인 상월결사와 함께 대학생 전법 포교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사찰과 대학교를 연결하는 미래포교 사업을 전개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포교 원력 선포는 제8대 포교원의 '전법ON'과 상월결사의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원력구호를 모은 것으로 미래포교에 대한 전방위적인 원력을 하나로 모으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포교 현장 일선에서 활동 중인 포교 · 신도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이 모두 참여한다. 선포식에서는 봉행사를 시작으로 법어, 전법 상징물 전달식, 전법 선언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 중흥을 위한 불교 각계의 원력을 하나로 모아 부처님 법을 다양한 곳에 전하자는 취지"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